

이길상(부산상고 은사) 1차 구술

1. 구술자: 이길상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12월 9일
5. 구술장소: 부산 해운대구 구술자 자택
6. 구술분량: 07분 27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고교 체육선생님이 기억하는 제자 노무현

구술자 : 부산상고는, 처음에는 통영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2)년후에 부산상고 와서 부산상고에서 십삼(13)년 근무하다가 다른 학교로 전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상고, 다시 또 부산상고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노 대통령 재학시절에 학창시절에 같이 부산상고에서, 노 대통령이 부산상고 오십삼(53)회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인상이) 키가 자그마하니 눈이 동글동글하니 시골에서 와 노니 본인도 얘기가, 뭐 지나간 여담이지만도 청와대에 선생들을 초청¹⁾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들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모두 아무 소리도 안하니까 제일로 먼저 대통령이 바로 ‘내가 시골에서 처음 부산상고에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이길상 선생이 겁이 나서 한 삼(3)개월간은 그 가까이 못가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작고했습니다만은 김도영 선생님 얘기가 ‘그럼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도 이길상 선생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겁이 납니까?’ 이래서 모두 와, 웃고 말았어요.

면담자 : 그럼 선생님께서는 체육을 당시에 담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체육시간에는 주로 어떤 걸 가르쳤나요?

구술자 : 저희 마 물론 체육시간에는 얘기할라면은 기초체력 양성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은도 대학을 못가고 바로 직장을 나가니까 직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주로 구기 이거를 마 준비운동을 마치고 나면 구기에 대해서 아(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 대통령님께서 체육 수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편이었나요?

1) 2003년 5월 8일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제31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초·중고 시절 은사를 초청하여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구술자 : 예. 농구에는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참가하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주로 마 이래 선생님이 특활(특별활동)로 배정해가지고 수업을 할 적에도 키 크고 이런 아(아이)들은 배구를 시키고 농구 같은 거 이런 거는 주로 점프력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로 특활로 배정해가지고 시키고 농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뭐 공이 흔하고 이래 하지 않으니까 시골에서 클 때는 주로 구기란 것은 안했고요. 안 시켰고 이래한데 왜 체육을 했나하면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초등, 그때는 국민학교라 머 일제시대 그랬지만 국민학교라 했는데 그런 시설이 학교에 없었고 또 시골학교 같은 데 그런 데는 축구공 정도지 배구공이나 농구공 이런 것은 탁구공 이런 것은 흔하질 안 해놓으니까 고등학교 들어오면은 다양한 방법의 아이들로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

면담자 : 그 학창시절 생각하실 때요 대통령님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노무현 하면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구술자 : 그때 우리가 볼 적에는, 조금 빼딱하다. 그때 우리는 뭐냐면 구세대고 지금은 그게 정상이죠, 앞선다는. 우리가 그때 볼 때는 그렇다고 크게 옆길로 나가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니까 반 학생들보다 한발 앞섰다는 것을 지금 내 가만 생각해보면 느껴집니다.

(나중에) 청와대에서 자기가 하는 소리가 식사²⁾를 하면서 ‘선생님이 머리 깎는, 일본말로 바리깡이라고 하지만 기계를 가지고, 가위하고 가지고 시험 때 앞문으로 이래 들어오시는데 나는 시험을 치다가 그대로 백지로 내놓고 싹 문을 열고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을 생각합니까?’ ³⁾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말이야. 그래서 실지 우리가 마 클 때 교육정책상 장발족이니 이래가지고 복장 단정히 하자 말이지 이런 의미에서 머리를 깎고 이랬지만. 그래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학교에서 지시한대로 머리를 삼센치(3cm)면 삼센치(3cm)로 깎아라” 이것을 아(아이)들에게 학생에게 경중을 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굳이 가는 것을 “너 임마 거기서” 하고 말이지 잡으러 가고 뛰어가고 그래 할 필요는 없었는 거거든. 아(아이)를 나가는 것을 그걸 뭐 들어갔는데 뒷문을 살 뺏겨놔놓고 나가는 것을 그걸 내가 모를 리가 있겠어? 그래서 뒤로 뒷문을, 앞문은 달아 놓고 시험을 치지만 보통 뒷문은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 있다 뒤로 살

2) 각주1)에서 말한 청와대 오찬행사를 말함.

3) 노 대통령이 오찬행사에서 “시험 보던 때 선생님이 두발검사 하려고 ‘바리깡’과 가위를 들고 교실 앞문으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시험지를 백지로 내놓고는 뒷문으로 빠져나갔던 일을 기억하십니까?”라고 했다는 말임.

머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가 ‘뒷문을 나가는 것을 내가 왜 그때 그걸 모르고 학생부 상벌계를 하겠나?’ 내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험 때 고 당시는 빠져나가버렸으면 자기는 (두발검사를) 면했지요. 그러나 교문에 서고 언제고 만나게 되면 긴 학생들은 선생에게 잡혀 와서 ‘깍으라’ 이래하고 그랬지.

■ 구술자 주요이력

1931. 울산 출생

경남고등학교 졸업

체육과 검정고시 합격 후 부산상업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등 부산·경남 지역 고등학교 체육교사 역임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재학 시기(1963~1966) 3년 간 체육과목을 가르쳤다. 학생지도부 교사로 두발단속 등을 담당했다고 한다.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열렸던 부산상고 동문 체육대회, 2003년 5월 청와대 초청오찬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남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